정인화 광양시장, 현안사업 현장소통 '주력'

산림복지단지 조성·통학로 개선
광영배수지 점검 보안강화 주문
맨발 산책로 찾아 운영현황 파악
"시정의 주인, 시민 목소리 반영"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2일 '7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맞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지난 12일 '7월 중 제1차 현장 소통의 날'을 가졌다.

이날 정인화 광양시장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현장 △동광양중학교 통학로 개선 및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 현장 △광영 배수지 운영 현장 △옥곡덕진2차 맨발길 조성 현장 △진월 용암세장 아래채 보수 정비사업 현장 등 5개소를 방문했다.

먼저 정 시장은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현장을 찾아 공사 소장에게 청렴도 개선 청렴서한문을 전달하고 현재 조성 중인 '산림레포츠 시설 진입교량 가설' 추진상황과 '숲어울림 조성' 예정지를 둘러봤다.

정 시장은 숲어울림 숙박동 조성 시 수목 등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각 숙박동 간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주변 산책로 정비도 주문했다.

광양시는 시민들에게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롤러짚, 로프 및 네트 체험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숲어울림 숙박시설, 산림박물관과 연계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기존 자연휴양림 시설 일원이 더욱 다채로워지게 된다.

이어 정 시장은 학부모연합회 간담회 시 건의된 '동광양중학교 통학로 개선 및 버스승강장 설치 건의' 현장을 찾아 교직원 및 학부모들과 함께 통학로 주변 교통상황과 버스승강장 설치가능 부지 등을 살피며 의견을 청취했다.

의견을 들은 정 시장은 중학교 북서측에 약 90m의 통학로 설치를 관계 부서에 지시하고, 학교 앞 대로변에 승강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변 상가 설득에 학교와 학부모의 협조를 구했다.

정인화 시장은 다음으로 광영동, 옥곡면, 진상면, 다압면 등에 상수를 공급하는 광영 배수지 운영 현장을 찾았다. 용량 및 송수지역, 수질 관리 및 보안 설비 현황 등을 점검한 정 시장은 보안 강화를 위해 광영배수지 내 맨홀뚜껑 적외선 충격 경보시스템 및 고지대 배수지 물탱크 출입문 설치를 담당 부서에 주문했다.

광영 배수지 운영 현장 점검 후 정 시장은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사업을 통해 옥곡면 덕진2차아파트에 조성한 맨발 산책로를 찾아 식재 수목 및 편의시설 조성 현황, 야간 안전사항 등을 상세히 살피고 현장에서 시민이 건의한 CCTV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현장소통의 날 마지막 일정으로 시 향토문화유산 제15호인 진월 용암세장의 아래채 보수사업 현장에서 보수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진월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인 외부 담장 정비 현황 등을 자세히 살피고 용암세장 관리자인 순흥 안씨 후손에게 설명을 듣기도 했다.

현장에서 정 시장은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용암세장이 도 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정의 주인인 시민의 목소리를 현안 사업에 담아내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이라며 "현장의 의견 하나, 하나 놓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으로 시민이 빛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역특화빵' 기술교육 성료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사장 김성)은 지난 8일부터 3일간 '장흥 지역특화빵 베이커리&카페 기술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장흥 관내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7곳을 선정해 진행했다.

건표고 전국 최대 산지인 장흥에서 생산된 원목 표고의 경우 조직이 치밀하여 씹는 맛이 일품이며 표고버섯 고유의 맛과 향이 뛰어나다.

칼슘, 인, 철, 칼륨 등 인체에 필수적인 무기물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에르고스테롤이 풍부하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표고를 이용한 빵 14종 중 선호도가 높은 빵들을 리뉴얼하여 표고 포카치아, 표고 삼합버거, 표고 바게트 등을 만들었다.

장흥 지역 특산물인 장흥 원목 표고·한우·키조개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빵 7종을 만들었으며 관내 제과·제빵 업체를 대상으로 총 3회의 교육을 시행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장흥 관내 업체 지역특화 빵의 생산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정남진 장흥 물 축제 등 지역 축제 연계를 통해 제품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특화발전에 발맞추어 장흥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표고 빵 등을 개발했다"며 "장흥군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철도마을 역사 문화 가치 알린다

순천시 조곡동주민자치회는 철도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제7회 순천철도마을축제 및 제5회 순천철도 어린이동요제를 오는 20일 오후 2시 조곡동 행정복지센터 광장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철도마을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이 철도마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풍선아트, 공예체험과 먹을거리 부스가 운영되며, 철도마을박물관과 철도문화체험관에서는 철도관사마을의 역사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과 모형 기차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다.

행사장에는 물놀이 에어바운스와 워터슬라이드 시설도 마련하여 축제를 찾는 어린이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철도마을 축제의 일환으로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창의력 증진을 위한 동요제가 축제 행사장 주무대에서 열리며 총 13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서 한국관광학회 학술대회 성료

여수시와 (사)한국관광학회·전남도가 공동 주최한 '제96차 한국관광학회 전남·여수국제학술대회'가 여수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지난 10일부터 3일간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를 포함한 10개국 1500여명의 관광연구자 등이 참여, '첨단기술시대의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과 혁신'을 주제로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14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날 개막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고계성 한국관광학회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상호 협력체계를 재확인했다.

'지역특별세션'에서는 '마이스 산업과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한 융복합 콘텐츠 개발'과 '여수항, 국제크루즈 관광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여수 관광에 대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정기명 시장은 "전남에서는 최초로 여수에서 개최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향한 국내·외 관광전문가의 뜨거운 관심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이 군청사를 방문하는 군민과 내방객에게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군청사 곳곳 군민 휴식 공간으로 단장

고흥군이 군청사를 방문하는 군민과 내방객에게 휴식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15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 청사를 딱딱하고 사무적인 관공서 이미지에서 벗어나 군민 누구나 편안하고 친근하게 청사를 방문해 만남과 소통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사 내외부를 군민 휴식 공간으로 단장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청에 들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북카페에는 교양, 소설, 시집 등 10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독서를 즐기며 만남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1층 종합민원실 SPACE 포토존에서는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방문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고, 분청사기 전시 감상과 물고기와 수경식물을 보는 재미와 함께 시원한 생수도 제공받을 수 있어 잠시 무더위를 피해 갈 수 있다.

또한 2층부터 6층까지 각층에는 복도와 테라스 등 유휴공간(6개소), 주민 소통공간(5개소)을 만들어 민원 상담과 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군청사 앞 잔디마당(4800㎡)은 공연장과 관람석을 갖춘 군민 광장으로 탈바꿈해 지난 6월 고흥아트바캉스날 행사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공연(4회)을 가질 계획으로 군민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

송민섭 기자

고흥군, 녹동항 드론쇼 '가족 사연 공모전'

고흥군이 '녹동항 드론쇼'에 대한 군민과 관광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오는 9월 추석 연휴에 예정인 특별공연 가족 사연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녹동항 드론쇼'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관객 참여형 이벤트로 특별한 사연을 700대 규모의 드론쇼로 표현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은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과 추억을 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16일부터 8월14일까지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2가족을 선정해 오는 9월14일 오후 9시, 사연에 대한 드론 프러포즈 이벤트 공연과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https://www.goheung.go.kr), 녹동항 드론쇼 홈페이지(http://nokdongdrone.co.kr) 및 인스타그램(@nokdongdroneshow_official)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민섭 기자

무더위쉼터 활성화 교육 운영
보성군, 폭염 대응 나선다

보성군은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 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민 휴식 공간을 활성화하고자 '쉬엄쉬엄, 안전 보성'이라는 주제로 '무더위쉼터 활성화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무더위쉼터 활성화 교육은 무더위쉼터 이용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안마봉 만들기 △녹차비누 만들기 △천연염색 체험 △전통예술(판소리) 체험 등 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폭염 대책 기간(7~9월) 동안 240회 운영된다.

또한,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지역민들이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자, 쿨토시, 쿨스카프 등을 제작해 참여자들에게 배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올해는 평년보다 잦은 국지성 호우와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돼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에 2024년 보성군 군민안전보험에 신규 5종인 △온열질환 진단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 수술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 담보 △야생동물 피해 보상 사망 보장 항목을 추가해 군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